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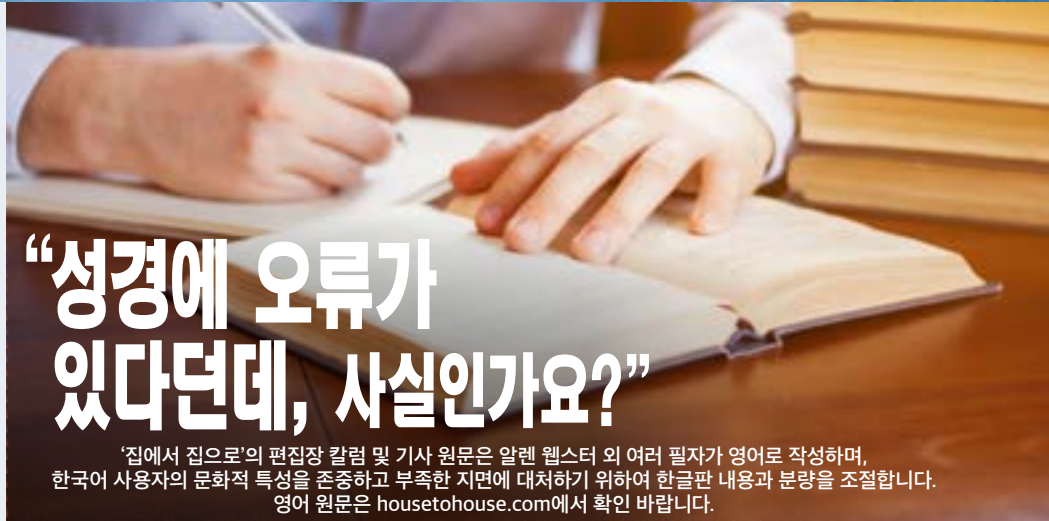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제25권 제5호
(한글판 2020-5호)



www.housetohouse.com
housetohouse.kr



“성경에 오류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집에서 집으로’의 편집장 칼럼 및 기사 원문은 알렌 웨스터 외 여러 필자가 영어로 작성하며, 한국어 사용자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부족한 지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글판 내용과 분량을 조절합니다. 영어 원문은 housetohouse.com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역교회나 기관 소개를
인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인쇄 문의: mark@bible.kr
(☎ 010-3636-3902)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성경 주변에 가능한 많은 장벽을 쌓아놓겠습니다. 가시와 덩굴을 심어놓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겁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시덩굴을 심어놓는 일에 바쁩니다(마태복음 13:18-22). 깎벌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24%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는 40년 동안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며 답한 책이 이미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답변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담은 건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100개 이상의 오류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장에 대해 우리는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인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두 가지(마태복음 1:1~17; 누가복음 3:23~38)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내려오지만(마태복음 1:2, 16),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담까지 위로 올라갑니다(누가복음 3:38).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조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누가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기록과 일치합니다.
-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두 계보가 일치합니다.

문제는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계보에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42명의 이름을 14명씩 묶어 소개합니다(각 묶음이 국가적 사건으로 끝남).

해답: (1)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긴 계보를 간소화하여 소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상을 생략했습니다. 주변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지점만 알려주면 목적지를 찾아가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일

HOUSE TO HOUSE/HEART TO HEART Korean version is an irregular publication prepared upon consensus among Korean congregations. The English version is published monthly by the Jacksonville church of Christ (PO BOX 520, Jacksonville, AL 36265). Allen Webster, general editor. Each is sent free upon request. To God be the glory.

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내용이고 유대인들은 조상의 계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마태는 중요 인물만 거론했습니다.

(2)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계보를 따라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합법적 권위를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사무엘하 7:12-16).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임을 보여줍니다(창세기 12:1-3).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두 사람을 통해 각각 이어진 혈통입니다(다윗에게는 최소 7명의 아내가 있었음).

(3) 유대인은 ‘아들’이라는 말을 네 가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직접 낳아 얻은 아들, 사위, 2세대 이상 지난 후손, 남편 사후에 시동생을 통하여 얻은 아들(신명기 25:5-10) 등이 모두 본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마태복음 1:16)과 헬리(누가복음 3:23)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낳아준 아버지는 야곱이었지만, 요셉이 잉태되기 전에 숨을 거둔 헬리가 요셉의 법적 아버지*였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왔는가, 아닌가?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다고 했지만(8:5-10)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냈다고 되어있습니다(7:1-10).

가능성: (1) 예수께 말을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미리 한 후 나중에 직접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나중에 찾아간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마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는 간략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8:14-15/마가복음 1:29-31; 9:1-8/마가복음 2:1-12; 9:18-26/마가복음 5:21-43).

(2) 백부장은 장로들을 통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적절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일은 당사자가 행한 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무엘하 14:19; 열왕기하 14:27; 에스더 3:15; 8:8; 에스라 1:7-8).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가 국회에서 직접 연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는 말씀(요 19:1)은 빌라도가 채찍질을 명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침례를 베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요 4:1-2).

(3) 예수께서는 백부장 “집이 멀지 아니하여”(누가복음 7:6)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7:9). 백부장이 문간에서 있었기에, 예수께서 백부장과 군중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수로 ‘고래’를 언급하셨나?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예수께서 고래라고 부르신 일(마태복음 12:40, 킹제임스성경)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과학적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와 예수는 현대어에서 ‘고래’, ‘물고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본들과 달리 요나가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와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리스어 단어는 ‘거대 해양 생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바늘’은 어떤 바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발행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보면 마태(19:24)와 마가(10:25)는 ‘바늘’에 해당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누가는 외과외사가 사용하는 바늘(18:25)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복음서 기록자 가운데 한 사람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가능성: (1) 마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설교를 인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는 같은 내용을 다양한 마을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4:17). 정치인들도 수개월 동안 매일 밤, 같은 내용으로 선거 연설을 합니다. 전도자는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다른 날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서로 다른 그리스어 단어로 번역했을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시각 장애인?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리고에서 바디매오라는 이름의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0:46-52).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盲人)”을 언급합니다(18:35-43). 마태는 눈 먼 사람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20:29-34).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눈 먼 사람을 고치신 것이 예리고를 떠날 때였다고 했고, 누가는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가능성: (1) 아마도 예수께서는 예리고 근처에서 시각장애인 세 사람을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명, 마가복음에서 다른 한 명,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한 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리고의 눈 먼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매오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에드워드 로빈슨은 누가복음에서 ‘가까이 가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 당시에 예리고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예전 예리고(여호수아 6장; 열왕기상 16:34)는 예수 시대에 거의 황폐화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전의 예리고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예리고를 지었습니다. 이 거적은 두 예리고 사이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몇 시?

마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가 제3시라고 했습니다(15:25). 요한은 예수께서 재판관을 받는 때가 제6시라고 기록했습니다(19:1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재판관이 열렸다는 것일까요?

답변: 마가는 유대식 시간을, 요한은 로



마식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식 시간에서는 오후 6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로마식 시간은 자정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재판을 오전 6시에 시작했고 십자가형을 오전 9시에 집행했습니다.

또 다른 백부장이 실제로 한 말은?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곳에 있던 백부장이 한 말과 관련하여, 마태(27:54)와 마가(15:39)는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했고, 누가는 그가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23:47).

답변: 백부장은 두 가지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빠짐없이 기록을 담은 전기가 아닙니다. 시기와 사건을 제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발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27:9-10, 새번역). 관련 내용은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레미야를 맨 앞에 두고 여러 선지서를 하나로 묶은 경우가 있습니다(참조: 마태복음 22:40). 유대인 학자 나훔 사르나는, “유대식 책 이름은 맨 앞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로 책 전체를 가리키고, 묶음의 맨 앞에 있는 책으로 그 묶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www.tektonics.org/lp/mkone2.php).**

강도들이 실제로 보인 반응은?

마태(27:35-44)와 마가(15:24-32)는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예수를 모욕했다고 했고, 누가는 한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했습니다(23:33-43). | 답변: 의심의 여지 없이, 한 쪽 강도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무덤의 천사는 몇 명이었나?

예수님의 무덤 바깥쪽에 있던 천사는 한 명이었을까요, 두 명이었을까요? 무덤 안에 둘, 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었을까요?

-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한 천사가 내려와 돌을 옆으로 굴렀습니다(28:2).
-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16:5, 새번역).
- 누가의 기록을 보면, 여러동절하고 있던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24:4).
- 요한의 기록을 보면,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에 관해 말한 후,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20:12).

답변: 여러 부분적인 보고의 세부 사항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증언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증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그 증언이 변질 또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천사의 모습에 관한 기록을 보더라도 날개를 지닌 존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출애굽기 25:20; 이사야 6:2),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히브리서 13:2).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창세기 18:2, 16-33; 32:24).

예수의 무덤에 관한 기록을 모두 종합해보면, 한 천사가 돌을 옮겼고, 무덤 바깥에 있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마태복음 28:2). 무덤 안에는 두 사람(천사)이 있었는데(누가복음 24:4; 요한복음 20:12),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돌을 옮기 그 천사였을 것입니다. 시간대가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무덤에 한 명의 천사만 있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한 그 천사를 언급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시편 119:160). 평행본문은 보완적 역할을 하므로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구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론으로 비난해도 성경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얻습니다.

가시덤불을 통과하여 성경으로 갑시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 해 전, 독일의 한 농장에 사는 한 여성이 교회 사역자에게 10달러 정도를 가져왔다. 당시로서는 꽤나 큰 금액이었다.

그녀의 설명은 이랬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액수만큼 약값이 필요했어요. 올해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후, 5달러 정도를 또 가지고 와서, 폭풍으로 여러 이웃 사람이 손실을 보았지만 자기 농장은 괜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표시로 이 돈을 교회에 갖고 왔습니다.” — 스티브 세퍼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 신성하신 사랑,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8
- 그리스도의 보혈, 로마서 5:9
- 성령의 말씀, 로마서 1:16
- 죄인의 믿음, 사도행전 16:31
- 죄인의 회개, 누가복음 13:3
- 죄인의 고백, 로마서 10:10
- 죄인의 침례, 사도행전 22:16
- 그리스도인의 사랑, 마태복음 22:37
- 그리스도인의 실천, 야고보서 2:24
- 그리스도인의 소망, 로마서 8:24
- 그리스도인의 인내, 계시록 2:10

편집자 주 *눅 3:23 헬리를 마리아의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마 27:9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스가랴서의 내용을 결합한 다음 더 유명한 쪽인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함.

바지 한 벌을 빼보렴

미국의 한 대학 졸업생이 의기양양하게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완전한 공인 회계사가 되었다.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이민 1세대였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장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는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 서류에 매출채권이 있고, 영수증은 저쪽에, 그리고 돈은 모두 금전 등 록기 안에만 있네요. 아버지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에 올 때 가진 것은 바지 한 벌뿐이었어. 이제 네 형은 의사이고, 누나는 미술 선생님, 너는 공인회계사가 됐어. 네 엄마와 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말이다. 우리는 차가 있고, 이 작은 사업도 한다. 자 이제 이 모두를 더해서 바지를 한 벌 빼면, 그 나머지가 다 우리 영업이익이란단다.” —저자불명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시편 95:2, 공동번역개정판



맨발로 걷고 싶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12살 소년은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났다.

데이비드는 면역 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때까지 소년은 평생을 플라스틱 보호 장치 속에서 살았다. 평범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소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플라스틱 보호 장치를 벗어날 수 있다면, 보호 장치 없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풀밭을 맨발로 걷고 싶고, 엄마 손을 만져보고 싶어요.”

가족 관계에 관한 좋은 글들이 ‘집에서 집으로’ 영어 홈 페이지 housetohouse.com 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 홈페이지는 housetohouse.kr입니다.



순결한 사랑

야곱과 라헬은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7년 동안 ‘사귀었습니다’(창세기 29:20-21). 성적인 접촉이 없이는 단 한 번의 데이트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자유방임적인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기의 3분의 1이 혼외 상태에서 잉태됩니다. 이 중 많은 아기가 낙태를 통해 살해됩니다(참고: 잠언 6:17). 임신 후 출산 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에서 매년 약 30만 명의 아기가 혼외 출산으로 태어납니다.

미혼남녀가 죄 많은 세상에서 강인해 지려면 격려가 필요합니다(디모데전서 4:12).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썼습니다(요한1서 2:14).

성경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리합니다(마태복음 5:8, 27-28; 마가복음 7:20-23; 고린도전서 6:18-20; 갈라디아서 5:19-21; 데살로

니가전서 4:3-7; 5:22; 디모데전서 5:1-2, 22; 디모데후서 2:22). 연애 기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결혼 후에 성관계를 갖도록 정하셨습니다(히브리서 13:4). 혼외 성관계를 갖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이기는 하지만, ‘음행하는 자’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6:9-11). 사랑은 욕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순결은 결혼 내내 지속해야 합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간음은 결혼으로 맺어진 결합을 끝내는 유일한 죄입니다(마태복음 5:31-32; 19:9). 세상은 보디발의 아내나 고멜을 닮은 배우자로 가득합니다(창세기 39:7-20; 호세아 1장, 3장). 미국의 한 유력 여성 잡지에서 수백만 쌍의 부부가 상호 간음(이른바 ‘스와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결혼 선물입니다. —저자불명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디모데후서 2:22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한 결심

우리는 바로 지금 각자 다짐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더 잘 돌보는 남편이 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에게 더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게 자기 자신의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에베소서 6:4; 디도서 2:3-4).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에베소서 6:1-3).

튼튼한 가정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저자 미상

당신 생각을 다 믿지는 말 것



저는 차량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간단 명료한 문구에 훌륭한 사실이 담겨 있기도 하고, 적어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은 운전을 하던 제가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추었을 때, 앞차에 “당신 생각을 다 믿지는 말 것!”이라고 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이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방송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무엇인가를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그것이 잘못이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된다는 논리이지요.

사회의 도덕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도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도덕’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들과 관련한 위험과 결과

는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구약시대 수리아(=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한센병. 악성 피부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열왕기하 5:11).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나아만은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요구하신 방법이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믿음만으로’, ‘물 뿌리는 세례를 통해’, ‘선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서 구원하셔야 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든, 실천이든, 삶의 방식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분개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그들의 변명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 되뇌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동료에 관한 판단이든, 주변 세상에 관한 판단이든, 하나님 앞에 지닌 우리의 책임에 관한 판단이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당신 생각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오란 로데스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11

제25권 제5호

성경퀴즈

이전 퀴즈 정답

※ 영어판 퀴즈 내용은 housetohouse.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글판은 housetohouse.kr에 자료를 업로드 중입니다.

제25권 제3호, 성경 속 여인들: 1. 다말(창세기 38:12~15); 2. 리브가(창세기 24:15~19); 3. 들릴라(사사기 16:18); 4. 요게벳(민수기 26:59); 5. 드보라(사사기 4:4~9); 6. 야엘(사사기 4:18~21); 7. 라합(여호수아 2:1~6); 8. 미리암(출애굽기 15:20); 9. 한나(사무엘상 1:20; 2:18~21); 10.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열왕기하 4:8~17); 11. 미갈(사무엘하 6:20~23); 12. 하와(창세기 4:1~2); 13. 엘리사벳(누가복음 1:57~60); 14. 사라(창세기 21:3); 15. 리브가(창세기 25:21~26); 16. 라헬(창세기 46:19); 17. 밧세바(사무엘하 12:24); 18. 하갈(창세기 16:15); 19. 한나(사무엘상 1:20); 20. 나오미(룻기 1:22); 21. 마르다(누가복음 10:38~40); 22. 미리암(민수기 26:59); 23.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사사기 9:50~55); 24. 마리아(마태복음 1:16).

제25권 제4호,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1. 모세(출애굽기 5:22); 2. 엘리야(열왕기상 17:18~20); 3. 아브라함(창세기 15:2); 4. 모세와 아론(민수기 16:20~22); 5. 솔로몬(열왕기상 3:5~9); 6. 모세(출애굽기 3:13); 7. 다윗(사무엘상 30:3~8); 8. 이스라엘 백성(사사기 21:2~3); 9. 모세(출애굽기 17:4); 10. 여호수아(여호수아 7:7).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습관: 1. 믿음(베드로후서 1:5) 2. 덕(베드로후서 1:5) 3. 사랑(베드로후서 1:7) 4. 절제(베드로후서 1:6) 5. 형제 우애(베드로후서 1:7) 6. 경건(베드로후서 1:6) 7. 인내(베드로후서 1:6)

성령

답을 찾을 곳: 마태복음 1:18; 12:31; 28:19; 누가복음 3:22; 사도행전 2:1~2, 3, 4~6, 13~15, 38; 5:3; 8:18; 로마서 14:17; 고린도전서 6:19; 고린도후서 3:17; 베드로후서 1:21. —『개역개정판』으로 질문을 구성하되 『새번역』을 참조함. ‘세례’ 또는 ‘침례’로 되어있는 부분은 ‘침례’로 통일하여 인용함.

-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_____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_____같은 형태로 강림하셨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_____으로 _____을/를 베풀고...”
- 유대인 절기 중 어느 날에 성령이 사도들 위에 임했나?
-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_____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이들은 무어라 조롱하며 비난했나?
-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하루 중 언제였나?
-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_____로 받을 것입니다”(새번역).
- 성령에 거짓말을 한 사람은?
-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_____이/가 있느니라”
-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_____같은 소리가 있었다.
- 오순절에 성령은 어떤 형태로 임했는가?
-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 오순절 날 사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은?
-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 했던 사람은?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_____와/과 _____이라”
- “너희 _____은/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_____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 예언은, “성령의 _____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우리는 판사가 헌법을 해석하고 역사가가 기록물의 내용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역사적 측면. 성경은 1,600년의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니네베)라는 도시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게 행동했을까요? 역사는 니느웨가 기원전 8세기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었고 요나의 민족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가르칩니다. 한 역사가는 니느웨가 “나치 독일과 미국 마피아의 혼종”이라고 묘사했습니다(맥스 앤더스,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Bible in 12 Lessons*, 151쪽).

문화적 측면. 죽은 형제의 가계를 보전하기 위한 결혼 제도에 대해 알기 전에는 룯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 친척은 죽은 형제의 땅을 되찾아 줄 수 있었고, 아이가 없이 죽은 형제의 가계를 위하여 그 과부와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세균이나 분자를 발견하기 전

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의 과학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글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리적 측면. 현대와 고대의 주요한 차이점은 거리의 극복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런던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5,000km 넘게 떨어진 뉴욕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사무엘상 1, 2장), 엄마인 한나와 소년 사무엘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 년에 한 번, 한나는 사무엘이 있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겹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한나의 여정이 일종의 탐험처럼 들리지만, 라마와 실로는 2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한, 고향에서 160km 이상 멀리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을까

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지도가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걸어간 이동한 후 지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갈 때에는 가파른 경사를 300m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언어적 측면. 성경을 연구하다 만나는 단어들은 모두가 번역된 것들입니다. 그 단어들이 원래의 언어에서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성경 원어를 공부할 때에는, 가능한 의미를 고려한 후, 근접문맥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선택합니다.

어려운 구절은 명확한 구절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교훈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 저자불명

편집자 주 *예루살렘의 영적 높이: 시 122편에서 보듯, 영적인 측면에서도 예루살렘은 높은 곳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18, 새번역



**아카멜라 찬송 인도자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신성한 노래

〈교육 관련 사항〉

교회음악개론:
2020.09.15(화) ~ 10주(주1회1시간, 오후 7시)
시향 청음:
2020.09.17(목) ~ 10주(주1회1시간, 오후 7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piritualsongs.kr/>

무료+착불 자료



□ 1시간 만에 읽는 성경 (소책자, 2권)
□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책자, 1권)

그리스도의교회출판사 발행

전도 소책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리는 10권짜리 시리즈
- 고급 아트지에 풀컬러 인쇄
- 표지 포함 16쪽 분량
- 내용 확인(이미지 제외): thechurch.kr/tracts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입 문의: 02) 2607-0645 (평일 09:00~16:00)

복된 사람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주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견디며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 등이 진정한 성숙함의 척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억울한 재판, 고문,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 등을 견뎌내며 그러한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통념과 다른 이러한 원칙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5:11-12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5:7

공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공유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5:4

애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12

손가락으로 가리킨 구절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사람들이 부상자를 모으며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딴 곳에서 었으린 상태로 목숨을 잃은 한 미국인 병사의 시신을 발견했다.

병사는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고, 신약성경의 펼쳐진 페이지 위에 검지 손가락이 병사의 피로 달라붙어 있었다. 성경에서 손가락을 떼자 성경 구절이 드러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죽어가는던 한 젊은이가, ‘원래의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저자불명

“나(=예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25

시타르타의 문을 두드렸더니

시타르타의 무덤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공자의 무덤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오랜 세월 쌓인 먼지만 떨어졌다. 무함마드의 무덤을 노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왔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렸더니, 그는 살아계셨다.

“내가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6, 그리스어 직역

발신자 주소를 인쇄하는 곳입니다.

인쇄 문의: mark@bible.kr

(☎ 010-3636-3902)



따르기 가장 어려운 명령

1893년 7월 2일, 미국 환원운동의 유명한 지도자 J. W. 맥가비가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연설했습니다. '회개'라고만 제목을 붙인 강론이었습니다.

맥가비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자신은 치유·예언·방언 등의 은사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을 바란다 했습니다.

놀라운 강론을 계속하면서 맥가비는 또 말하기를, "사람이 구원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 의지의 집요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맥가비는 설명하기를, 난이도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의 신성한 본성에 관해 설

득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증거가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침례받고 죄를 용서받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맥가비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 같은 존재이거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는 영생의 희망이 없구나' 하는 확신만 갖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테살로니가후서 1:8~9; 히브리서 5:9; 베드로전서 4:17).

맥가비는, 진정한 개종으로 이끄는 길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삶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매우 힘든 도전입니다. 또한 회개하다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누가복음 13: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교(=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용서받기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원문 및 오디오:
<https://www.iebible.net/core-bible-series/>

무료+착불

housetohouse.kr에서 신청하세요!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사이트로 초대합니다.
영문: housetohouse.com
한글: housetohouse.kr